

## 영국군의 ‘이라크 전쟁’ 고찰



육군중령(진) 전 계 이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2003년 3월 20일 미·영 동맹군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정확히 4주 후에 후세인 정권은 붕괴되었으며, 대부분의 이라크 지역은 미·영 동맹군에 의해 통제되었다. 영국군은 불과 70여일 만에 약 4만6,000명의 전투병을 3,400마일이 떨어진 걸프지역으로 전개시켰고, 미군과 동등한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 세계적 수준의 군수지원 능

력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영국군의 전쟁경험은 우리군이 이라크에 추가적으로 파병될 경우 파병을 준비하고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시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영국군의 참전은 대테러전의 일환으로 직접 전쟁수행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추가파병은 이라크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파병을 준비하고 전개하는 과정, 작전수행, 군수지원 절차 등은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영국 국방부가 이라크 전쟁에 관해서 분석한 1차 자료<sup>1)</sup>를 요약·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I. 전쟁 배경

1991년 유엔은 이라크군이 유엔 다국적군에 의해 쿠웨이트로에서 축출된 이후, 이웃 국가에 대한 사담 후세인 정권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이라크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였다. 여기에는 유엔 특별위원회(유엔SCOM)와 IAEA 사찰하에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파괴 또는 제거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은 수년 동안 사찰활동을 방해하고 기만해왔으며, 대량살상무기를 은폐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유엔은 이라크가 이전의 유엔결의안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조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이라크의 비협조에 대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결의안 144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라크는 유엔의 사찰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속이는 행태를 계속하였다. 이라크 정권이 유엔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2003년 3월 20일 미·영 동맹군은 사담 후세인 정권

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 II. 계획 및 준비

미국 영국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개월 전부터 군사적 행동을 위한 준비를 착수했다. 군사적 행동 준비를 빨리 하는 것은 유엔을 통한 문제해결의 과정이나 절차가 손상될 수 있으며, 너무 늦게 하면 후세인 정권이 수개월 동안 전쟁준비를 하거나 이라크 주변국 또는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동맹군에 대해 선제공격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은 군사적 준비를 위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신중하였다.

영국은 2002년 11월말 최초로 예비군 소요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군사장비, 특별히 개량할 장비를 검토하였다. 영국은 가능성있는 필요한 작전을 연구하고, 긴급작전소요(UOR:Urgent Operational Requirements)를 통해서 군의 능력을 조정하고 보완하였다. 2002년 12월 중순부터는 특정훈련을 실시하고, 이동 준비시간 단축을 위한 준비태세, 수송선에 선적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였다.

영국군은 2003년 1월 초부터 3월 18일까

지 4만 6,000명의 병력과 장비를 3,400마일 이상 떨어진 전쟁지역으로 전개하였다. 1월 7일, 약 9,000명으로 편성된 HMS ARK ROYAL 영국 태스크 그룹(포클랜드 전쟁 이후 최대 합동전력)이 걸프지역으로 향하였다. 1월 20일 영국은 Challenger 2 전차, Warrior 장갑차, AS-90 자주포, 헬리콥터로 장비된 약 2만8,000명의 지상군을 영국과 독일의 기지로부터 걸프지역으로 전개시키기 시작하였다.

2월 6일 영국공군은 25대의 항공기와 1,000명의 병력이 걸프지역에 이미 주둔하고 있었으나 약 100여대의 항공기와 7,000명 이상의 병력을 추가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라크 지역에 전개된 동맹군의 전체 병력은 46만7,000명이었으며 그 중 영국군은 4만6,000명이었다. 예비군의 동원명령은 1월 초에 하달되었으며, 작전이 개시되기 전까지 약 5,000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전개를 위해서는 선박과 항공 자산에 대한 대규모 민간 용역계약이 필요하였다. 약 1,000명의 영국군이 연합작전을 위해 National Contingent Headquarters에 배치되었다. 전역에서의 훈련은 3월 3일부터 비행금지구역의 순찰 비행 훈련을 포함하여 키프로스에서 상륙 훈련, 걸프지역에서 미군과 연합훈련 등이 실시되었다.

## III. 군사행동

2003년 3월 18일 영국과 미국은 “사담 후세인이 최후통첩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외교적 방법은 끝났으며, 군사적 방법밖에 대안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동맹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무장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면서, 이라크의 군사력과 후세인정권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라크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행동은 3월 20일에 시작되었다. 미·영 동맹군은 최대한 지휘관에게 융통성을 부여하고 통합작전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전투력을 편성하고 계획하였다. 미·영 동맹군은 우선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하고, 근접항공지원 속에 이라크 지상부대를 격파하면서 신속히 공격 기동로를 확대해 나갔다.

영국군의 첫 번째 목표는 알포 반도와 핵심 유정시설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움카스르 항구 항구에 대한 접근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영국 해병 제40, 제42여단이 해군의 화력지원을 받으면서 상륙을 실시, 성공적으로 유정을 확보하였다. 이라크군의 치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4일 만에 영국군은 바스라 국제공항을 확보하고, 주변지역으로 점령지역을 확대해 나갔다.

1) Operations in Iraq (First Reflections), The Ministry of Defence UK, 2003.7.



이라크 지역으로 항해중인 영국군

4월 6일 영국군은 이라크의 바트당 저항을 물리치고 바스라에 입성하였다. 영국군은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신속히 지역 지도자와 협조하여 치안기능을 회복시켜 나갔다.

영국군이 이라크 남동부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미군은 바그다드를 향해 신속히 진격할 수 있었다. 미 육군은 작전 개시 4일 만에 바그다드로부터 60마일 떨어진 나자프에 도착했으며, 미 해병은 북쪽 알쿠트를 향해 진격하였다.

4월 9일 바그다드는 마침내 해방되었다. 바그다드 군중들은 모여서 동맹군을 환영하였으며, 사담 후세인 동상을 파괴하였다. 5월 1일 부시대통령은 주요 작전은 끝났다고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지상작전은 정밀공중공격의 지원하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영국공

군은 약 2,500소티를 출격(동맹군 전체의 6%에 해당)하였으며,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900개 이상으로 그 중 85%가 정밀유도무기였다.

영국공군은 공중공간 통제와 정찰, 수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영국 공군의 공중급유기는 약 190만파운드 연료를 재급유하였는데 그 중 40% 이상을 미군의 해군과 해병대 비행기에 공급하였다.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는 영국 공군의 정밀공격으로 지상군과 교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모든 표적선정과 무기의 선택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영국해군의 주요 역할은 병력과 물자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전지역의 작전적·전술적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여 합동군의 상륙을 보장해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 하는 것이었다. 해상에서 이라크의 저항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영국해군은 기뢰와 자살폭탄 보트, 그리고 지상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였으며 약 200개의 기뢰를 탐색하고, 2척의 예인선과 6척의 이라크 순찰함을 움 카스르 항구에서 포획하였다. 영국해군은 3월 28일까지 4척의 미군함정과 6척의 대기뢰함정으로 움 카스르 항구 항구까지 해상 통로를 개척해 조기에 국제기구의 대이라크 원조가 가능토록 하였다.



이라크내로 진격하는 기계화 부대

#### IV. 장비능력 & 군수

영국군의 과거 전쟁경험과 장비성능에 대한 훈련은 이라크전에 있어 군수와 장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코소보 전투이후 영국군은 전천후 폭격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이러한 능력은 이번 전쟁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다.

또한 최근 아프카니스탄의 전쟁경험은 개선된 장비의 획득과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라크 전쟁을 위해 영국 국방부는 약 5억1천만파운드에 해당하는

190개 이상의 긴급작전소요 과정(The Urgent Operation Requirement Process;UORs)을 승인했으며, 전쟁중 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수많은 UORs를 추가적으로 진행시켰다. 일부 UORs의 목적은 특정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영국 정보기관은 이라크군이 동맹군 기동의 자유를 거부하기 위해 이라크와 쿠웨이트 해안과 강에 수백개의 기뢰를 설치하는 전술을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영국해군은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신형 음파장비를 도입하고, 새로운 장비개발 등을 통해



백격포 사격중인 영국군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였다.

지상 작전에서 영국군은 사막지형의 먼지와 고온 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Challenger 2 전차는 먼지 흡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수 필터와 스커트 부착 등의 개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으로 각 주요 지상장비의 평균 가동률의 경우 차량은 85~95%, Challenger 2 전차는 90%를 유지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영국군에게는 먼지와 고온 상황날씨에 매우 적합한 SA80-A2 소총이 지급되었다. 아프카니스탄전에서 소총의 결함과 성능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미 해결하였기 때문에 모든 부대는 개선된 소총을 신뢰하였다.

공중 작전에서 영국군의 기본원칙은 최소의 전투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밀유도무기 사용이 핵심이었다. 영국군은 크루즈, 토마호크 미

사일은 물론 Tornado GR4 항공기에 운반되는 Storm Shadow공대지 미사일(사거리가 2백30km이상), GPS 유도 대전차 Maverick미사일, 개선된 Paveway 폭탄의 획득을 통해 공대지 정밀공격 능력을 대폭 강화시켰다. 또한 그러한 무기들의 운반이 가능한 Tornado GR4s와 Harrier GR7s 항공기도 추가 구매하였다. 이라크전에서 영국공군이 사용한 무기중 85%가 정밀유도 무기였으며, 이러한 무기의 사용으로 우군과 이라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영국군은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통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군들의 시스템과 호환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호 운용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UORs를 통해 도입된 수많은 새로운 장비들은 정보·통신 소통과 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였다. 영국 육군은 Clansman주전술 통신 시스템에 중요한 제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새로운 Bowman시스템을 2004년부터 도입 할 계획이다. 그동안 각 부대에는 최대한 작전의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경량의 전술위성통신시스템과 같은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Clansman의 결점을 보완하였다.

전쟁터에서 피·아를 신속하게 구별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복잡한 현대전

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전쟁이 개시될 때까지 영국군은 1,861개의 차량 탑재, 5,000개의 미탑재 식별장비를 배치했다. 또한 영국군은 공중과 바다에서의 식별을 위해 추가적인 피아식별(Identification Friend or Foe ; IFF)장비를 구입 보급하였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아무리 정교한 장비라 할지라도 100% 절대 안전한 시스템은 불가능하였으며, 불행히도 수많은 영국군과 미군이 소위 ‘우군 사격(friendly fire)’에 의해 사망했다.

피복, 음식, 수용시설은 모두 전투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영국군은 최근 수년 동안 이러한 장비의 질적 개선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영국군은 이러한 장비의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전투화, 피복, 개인장비의 상비량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것이다. 영국은 최초 이라크전을 위해 합동신속대응군(Joint Rapid Reaction Force)과 선발대(Spearhead) 등 총 9,000명의 병력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추가적인 대부분의 물자들을 제시간에 확보해 전장에 보냈다.

안전하고 질적으로 양호한 음식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영국군의 주급식은 전투식량(Operational Ration

Pack)으로, 각 개인에게는 일일 다양한 메뉴의 충분한 3끼의 음식과 1회의 간식, 100의 식수가 제공되었다.

영국군은 실용적이고 신선한 음식만을 각 부대에 제공하였다. 총 300만개의 식량 팩(봉지), 신선한 음식과 물을 담을 수 있는 745개의 ISO컨테이너가 보급되었다. 군수지원은 합동군 군수사령부(Joint Force Logistic Component Headquarters)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군수품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1만5,000명 이상되는 병력이 이 분야에서 종사하였으며, 수많은 인원들이 영국에서 후방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들은 19만개 이상되는 요구품목을 다루었으며, 공중 재보급 작전은 일일 최대 254t까지 달하였다. 군수는 일단 장비가 전역에 도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작전 전역(종종 수백마일이 넘는)전반에 대한 복잡한 분배절차는 도착 이후부터 시작된다. 전장에서 기동부대에 대해 정확히 재고를 추적하고, 물자를 보급하는 것은 군수절차의 핵심이다.

영국군은 과거경험을 통해 재고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미군의 자산파악(Total Asset Visibility ; TAV)시스템을 UORs로 구입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3개월 안에 영국군의 보급망에 통합하고, 충분히 운용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TAV 도입으로 영

국군의 군수지원 능력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 V. 사람(People)

영국군의 질적으로 높은 훈련수준과 전문적 기술은 그들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영국군의 훌륭한 규율, 동기, 자질, 그리고 용기는 그들의 성공을 가능케 한 기초적인 요소였다. 영국군의 시가전 경험(특히 북아일랜드와 발칸), 기술발전은 이라크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군은 전투뿐만 아니라 매우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적대국의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였다.

약 5,000명의 예비군이 이라크전에 참전하였으며, 이들은 보병과 군수분야로부터 의사와 항공관제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요 작전 종료 이후 2,700명의 예비군들이 안정화와 이라크 재건설을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동원되었다. 일부 예비군들은 전방부대, 예비대 또는 후속부대에 편성되었다. 수많은 영국 시민들이 군을 지원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200명의 민간인들이 중동지역에 배치되어 직접 소방관 그리고 작전 분석가, 과학자, 계약 및 재정관리, 정치적 조언자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

다. 또한 영국군의 민간계약자(고용자)들은 후방에서 장비의 기술지원, 통역, 음식물 조달, 선박 하역 등 광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영국군이 이라크에 전개되기 전·중·후에 많은 의료적인 지원이 있었다. 특히 개인들에게는 건강·위생에 대한 위협과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영국군의 각 부대에는 전방 의료지원이 실시되고, 2개의 근접지원(Close Support)과 2개의 일반지원의료단(General Support Medical Regiments), 3개의 야전병원(2개로 충분했지만 1개는 예비로 설치), 2개의 Commando Forward Surgical Groups, 그리고 공군 ARGUS에 초기부상자수용시설(Primary Casualty Receiving Facility, 100개의 침상을 구비한 병원)이 설치되었다.

영국군의 의료진 구성은 2,800명의 의료참모(군의원)를 포함하여 약 760명의 의료 예비전문가로 충분하게 구성되었다. 영국군과 미군의 의료팀은 긴밀하게 협력하였으며, 그들은 각기 자기 작전지역에서 상대방의 군인들을 치료해 주었다.

전쟁기간중 상당히 많은 수의 영국군 사망자가 발생했다. 5월 1일까지 33명의 군인들이 영국을 위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에도 사망자는 계속 발생했다.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은 매우 진지하고,

각기 가족들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사망자의 결혼하지 않은 배우자를 위해 기존 보상금을 확대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포클랜드 전쟁 이후 영국군은 매장을 위해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영국군의 복지대책(Operational Welfare Package)은 전개된 군인들에게 정서적·육체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여기에 군 무료항공 우편(Forces Free Air letters, 일명 'Blueys')으로 메일, 전화, 신문, 라디오방송, 제한된 인터넷 등이 포함되었다. 현재 이것은 인터넷 장비, TV 방송 그리고 무료 서적실 등의 추가적인 시설구축으로 확대되었다.

영국군은 이를 우편(Royal Mail)제도와 결합시켜 군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포 2kg까지 무료 우편서비스를 제공했다. 2월초 이후 전체 약 10만 통의 편지와 소포가 걸프지역에서 처리되었다.

## VI. 전쟁 이후

2003년 3월 17일 아조레스 정상회담에서 전후 이라크의 미래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미·영 동맹군은 '이라크와 이라크 국민에 대한 계획'을 위해 작전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①안정화(stability)단계로써 이라크 민간정부가 복구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정된 환경 조성, ② 복구(recovery)단계로서 이라크 자체정부로 이양을 시작하기 위해 국가적 복구사업 지원, ③ 이양단계(transition)로서 동맹군의 통제로부터 항구·평화적인 자치정부로 이양을 완료하는 것이다. 영국군은 다른 지역에서 전투가 계속되더라도 남부 이라크에서는 안정화 작전을 개시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영국군의 당면한 주요 임무는 헤이그 및 제네바 합의에 따라 이라크 국민들의 인도주의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안전이 보장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영국군은 주요작전 직후 국제기구에 의한 이라크 원조가 어렵다고 판단 미군과 연계하여 국제기구들의 지원이 가능할 때까지 남부 이라크지역에 대한 비상지원을 실시하였다. 영국군은 필요한 곳에 신속히 음식, 물, 연료,약품, 기타 필수품들을 제공하였다. 영국군은 작전지역의 치안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인도적 지원책임을 가능한 빨리 국제기구에 넘기기 위해 노력하였다. 후세인 정권의 통제력은 제거되었지만 잔존세력들의 저항과 일부 도시에서는 약탈이 자행되었다.

미·영 동맹군은 이라크군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군사작전보다는 이라크 민간인

들을 보호하고 질서유지와 약탈 방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영국군은 이라크 경찰들이 신속하게 치안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약 2,000명의 이라크 경찰들이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4월 13일부터는 영국군·이라크경찰이 합동순찰을 시작하였다.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1,400명으로 구성된 미·영·호주 합동작전 ISG(Iraq Survey Group)다. ISG의 주요 임무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고 제거하는데 있다. 영국군은 이라크에 대한 사전 정보, 전쟁획득 물자의 활용, 이라크 과학자·기술자·기타 인물들의 조사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확인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군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고 파괴하는데 대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주요작전이 종료된 현재 영국군의 임무는 전후 복구단계 요구에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수의 병력이 이라크에 주둔할 필요는 없어졌다.

영국군은 1만4,000명의 병력만을 이라크 지역에 남겨둔 채 이미 복귀하였다. 영국군의 복귀는 임무가 전투작전으로부터 치안과 안정을 위한 작전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라크 지원을 위한 영국군의 주둔 필요성은 군사적인 목표, 이라크

안정, 국제사회의 동참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

## VII. 분석·교훈

### 1. 정보의 역할

정보는 미군과 다른 동맹군들의 작전능력을 현저하게 강화시켰다. 이것은 생산된 정보의 질과 유용성, 그리고 적시성이 결정적이다.

공격피해평가(Damage Assessment)를 포함한 ‘실시간’ 표적정보는 동맹군의 지휘부에게 제공되고, 정밀무기에 의한 타격은 매우 정확하고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작전과 관련한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는 그것이 사용되기 전에 해석, 정제되어야 한다.

### 2. 대중매체의 역할

미디어 분야에서 영국군의 목표는 전쟁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최초부터 영국군은 작전에 관련된 문제는 전장에 있는 군인이 설명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전략적·정치적 사안은 국방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사소한 사건이 전체적인 전쟁 상황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기자들에게 전쟁·전투의 경험을 교육하였으며,

이것은 기자들이 올바른 보도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미디어는 합법적인 활동영역으로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군의 명예와 사기,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더 밀접하게 군과 미디어가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정보전(The Information Campaign)

영국군의 정보전은 후세인 정권과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지와 태도를 약화시키기 위해 계획되었다. 정보전은 미디어를 통한 여론형성(텔레비전, 신문, 위성 및 통신케이블 전파매체, 인터넷 등), 이라크인들에 대한 전단 살포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정보전을 통해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약화시키고 이라크 군인들이 탈영하거나 항복하도록 유도하였다. 정보전은 군사행동과 직결되었으며 상대를 압도하면서 신속한 작전의 성공을 가능케 하였다.

### 4. 작전 측면

전략적 민첩성과 전장지역으로 기동이 이번 전쟁을 결정지었다. 동맹군이 보유한 기민성은 신속한 재임무 수행을 가능케 하였다. 특히 지상군의 결정적인 작전성공은 경량화된 부대의 신속한 전개, 고도의 장갑화된 기동능력, 실시간에 이루어진 근접항공 지원의 결과이다. 지상전은 장비성능에 대한 신뢰, 방호성, 기동성과 더불어 부

대를 통합 운용하는 융통성이 중요하였다.

예를 들어 시가전에서는 경량화부대와 중무장부대를 통합하여 작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무인항공기에 의한 실시간 표적정보가 항공기와 포병에게 신속하게 전파되고 정밀하게 타격이 이루어짐으로써, 장갑부대는 보병의 보호 없이도 신속히 도시지역을 기동하면서 고립된 소규모의 적들을 쉽게 격파할 수 있었다.

공중작전은 근접항공지원 통합과 보다 정밀한 타격이 중요시되었으며, 다목적 항공기, 장거리 항공기, 공중급유기는 작전의 지속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사일 등 장거리 타격무기체계는 정확성 향상과 표적유도 소요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였다.

### 5. 연합작전

연합작전은 정치·외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 전쟁·작전수행의 융통성, 통합 능력 발휘, 정보공유와 위험분산 등에서 이점을 제공해 준다.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연합작전기구 설치와 더불어 동맹군과 전투력을 통합하고 훈련, 장비, 그리고 작전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국군은 미군과 연합작전을 위해 전쟁 초기부터 미군사령부 핵심에 다수의 영국군을 참여시켜 모든 수준에서 군사적 지휘의 연결고리를 밀접하게 유지하였다.

## 6. 비대칭 작전(Asymmetric Operations)

미·영 동맹군의 병참선유지와 후방지역작전에서 보다 큰 위협은 사담 후세인 정권과 밀접하게 연계된 준군사조직과 비정규군이였다. 대부분의 훈련은 단순 명료한 전투공간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었는데, 향후 영국군은 이러한 비대칭적인 복잡한 양상을 반영한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 비대칭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있어서 민첩하고 경량화된 부대의 능력과 가치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 7. 영국군의 장비

영국군의 군사장비는 사전 철저한 준비와 보관을 통해 모든 장비는 사막지형에 적합하게 개조되었으며, 기대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였다. 영국군의 Challenger 2 전차, Warrior 장갑차, AS-90 자주포는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함으로써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국군의 사상자가 적게 발생한 것은 뛰어난 장갑 방호능력 때문이었다. 개인화기인

SA80 A2 소총도 기능이 훌륭하게 발휘되었다.

## 8. 군수지원

군수에서 중요한 것은 부대의 전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공중에서 C-17 수송기, 해상에서 Ro-Ro 선박이 훌륭한 역할을 하였지만, 전개와 재보급을 위해서는 민간계약에 의한 수송선박과 항공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거리 작전시에는 공중·해상 수송자산의 확보와 능력이 중요하다. 원정작전시 군수지원은 통합군수지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통합군수지원의 절차와 과정은 각군(육군·해군·공군)의 기존 보급망과 더욱 밀접하게 통합되도록 표준화 정교화 되어야한다. 지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서는 보급망 전반을 통해 전투부대의 가용 장비와 재고를 추적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견고한 추적시스템이 필요하다. **참**